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35호 화엄사사자삼층석탑



솔바람에 나부키는 석탑

윤강로

구비 구비 먼 길 아껴 돌아
숨가쁘지 않게 찾아가니
두류산이라 했던가
청량산이라 불렀던가
무어라 불러도 지리산은 영산
천축에서 화엄경 품고 온 연기조사가
산기슭에 세운 절 화엄사 있고
절 서북쪽 높은 터 솔향기 자욱한 곳에
석등 마주한 석탑 있으니
화엄사사자삼층석탑

탑신에 양각으로 새긴 불심 어린 조각들
시공에 숨쉬는 꽃 청아한 악기 소리.
춤이 있고, 이렇듯 아름다운 것을 바치는 천인상
노 비구에게 울리는 작설차 향기로운 효심
또한 그윽하니
기둥인 듯 탑을 떠받친 네 사자의 어금니와 눈매
용심이 어찌 삼엄함뿐이라

평평한 경사의 지붕 부드러운 처마의 선
탑머리 장식의 경쾌미

자랑스러워라
내 나라 국보 석탑의 자태
그 경지
신라의 아이처럼 속기를 떨치고 본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윤강로 시인은... 1976년 〈심상〉으로 등단. 시집 〈불꽃놀이〉, 〈사람마다 가슴에 바람이 분다〉 등

“우리는 부처님 처럼 살아야 합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부처님 오신날 봉축인터뷰

“우리 중생은 어둡습니다. 중생이 어두운 이유는 고(苦),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 괴로움에 뿌리는 나라는 허상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투신 뜻은 중생이 어두운 세계를 벗어나 밝은 지혜를 얻게 하는데 있습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가장 먼저 부처님이 오신 뜻을 상기시키며 말머리를 풀었다. 5월 9일 종정 취임 후 교계연론과 가진 첫 공개 인터뷰. 스님은 긴장감 없이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평소에 간화선의 수승함을 강조했던 만큼 스님은 모든 국민들이 간절한 화두를 들고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온 국민이 부처님 같이 생활해야 고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오매불망 간절히 화두를 들고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을 알아야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나아가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처럼 살아야합니다.'”

최근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에 북한 조선 불교도연맹의 참석이 좌절된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념과 사상을 떠나 어려우면 서로 상부상조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조그마한 땅 덩어리에서 잘못된 사상과 이념으로 분단된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사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밝은 미래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북통일이 이뤄질

오매불망 화두 쫓아야 '眞我' 찾아

'간화선 세계화' 위해 마지막 원력

도박사태 '수행자 자격 없다' 경책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서로 상부상조하고 도와야 합니다.”

한국불교 세계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이를 위해서는 간화선이 세계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진제스님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미국을 오가며 간화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은 5월 9일 열린 불기 2556년 봉축 공개 인터뷰에서 수행을 통해 참나를 찾고,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당부했다.

“지난해 미국 뉴욕 리버사이드교회에서 지식인과 이웃종교인들에게 한국불교의 간화선을 소개하는 법회를 가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관법이 유행하고 있는데, 당시 그 곳에 모인 사람들이 설법을 듣고 새로운 감화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이 수승한 수행법을 온 천하에 전할 수 있다면

미국이든 어디든 같 것입니다.”

종단 현실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함께 나왔다. 먼저 최근 벌어진 스님들의 도박 사태에 대해서는 “시주밥을 먹음 자격도, 먹물웃을 입을 자격도 없다”고 강한 경책을 내렸다. 삭발염의한 수행납자로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는 것이다.

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 결사는 ‘부처님 법을 실천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온 종도가 매일 하루를 일년 삼매로 원을 세우면 구습은 사라지고 자성과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당부도 함께 내렸다. 종단 화합을 위한 열빈자 대사면도 원로회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스님은 밝혔다.

진제 스님은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이 자비의 마음을 잊지 않길 당부했다. 지혜와 자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혜는 마음을 닦아야 이룰 수 있고, 복은 선행을 할 때 옵니다. 부처님도 선행을 거치면서 많은 선행을 한 뒤 부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찾고, 남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대구 동화사=신종일 기자

“용산 구속자 사면·가석방 재차 촉구”

자승 스님, 용산 참사 유가족 예방서 밝혀

유가족들 '답답한 정부' 성토

“용산참사 수감자들은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이 사면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위원회와 법무부에 재차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월 10일 용산 참사 관련 구속 수감자들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용산참사 관련 수감자들의 사면 다시 한번 촉구할 것을 밝혔다.

이날 자승 스님은 “좋은 결과를 못 드러 마음이 답답하다”며 “종단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유가족들은 “종단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성탄절 사면만 있고 부처님오신날 사면이 없다니 정말 답답한 정부다”라며 “대부분의 수감자들의 형기가 2/3를 지났다. 사면이 어렵다면 가석방이라도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자승 스님은 5월 1일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사태 구속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지난 2월에도 용산참사 구속자 특별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부처님오신날 사면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번 정권에서 성탄절 사면만 2번 이뤄졌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면 기준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용산 참사 유가족의 예방을 받고 수감자 사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종교가 정의와 평화 이끌자”

교황청종교간대화평의회, 봉축메시지 전달

교황청종교간대화평의회(의장 장 루이 토랑)는 5월 4일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올해도 부처님 오신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전 세계 불자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온이 깃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교황청종교간대화평의회 봉축메

시지에는 미래세대를 올바른 길로 함께 인도하길 바란다는 기원이 함께 담겼다. 교황청종교간대화평의회는 “불교와 기독교가 마음을 모아 젊은이들이 정의와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함께 이끌자”며 미래세대 교육에 대한 무한 책임을 함께 짚어지고 갈 것을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외부업체와 협약 잇달아

NH농협 사찰 대출 일원화 NEPA 문화재 보호사업도

조계종이 외부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사찰 행정과 문화재 보호 사업 등을 진행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5월 10일 NH농협금융지주회사(회장 신홍식)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종단 소속 사찰 기채승인 관련 대출을 NH농협종로지점으로 일원화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사찰 신용도가 낮게 평가돼 제

대로 불사를 못하거나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의 이자를 부담했으나 이번 협약으로 종단승인을 받은 기채승인은 저리로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아웃도어 브랜드 NEPA(평안L&C 주식회사)와 사찰 문화재보호 및 사회공헌 활동을 주요 골자로 한 업무제휴협약을 5월 9일 체결했다.

NEPA는 교구분사와 문화재 사찰 72곳에 종무원을 위한 근무복을 지급했으며, 향후 사찰문화재 안내관 설치 등 추가적인 문화재 보호 활동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신종일 기자

公 告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총무원장 중앙총회의장 호계원장 총무원 부원장 및 임직원 전원

위 스님들은 본 종 종헌 제1조(종명) 1항 종명을 변경할 경우, 본 종단 재적장로(원로) 전원, 재적중앙총회의원 전원, 재적종무원 전원 그리고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이 참석하는 합동연석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또한 종단의 상위기구인 재단법인 대한 불교 일불선교종 재단이사회의 동의 없이 종헌종법에 위배되는 종명을 2012년 4월 16일 중앙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2012년 4월 25일자 현대불교, 법보 신문에 공고문을 내고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으로 변경하는 명칭변경 신청서를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제출한 것은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은 물론이고 이는 해종행위에 해당하므로 직위해제함을 공고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의 종단업무는 2011년 3월 21일 재단중심체제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재단이사회와 총무원장(화엄), 원로스님들의 합의하에 발족된 (재)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중심체제 개혁위원회 중심으로 창종주이신 일불존자님의 유지와 법통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종도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애중심으로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6(2012)년 5월 11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을 구종(求宗)하는 종도일동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중심체제 개혁위원장 경원, 원로스님 다수(3세종정 무찰, 7대 총무원장이자 현 원로의장 지공, 원로의원 수암, 원로의원 원각, 원로 도기, 원로 혜천, 6대 총무원장 동봉, 전부원장 법선, 법성),교구총무원장 다수(7명), 총회의원 다수(14명), 재단법인이사회 임원 전원)〉